<IPS 외국환중개 2016년 9월 23일 시황>
http://www.ipscorp.co.kr/24_IrProducts.asp

1.글로벌 채권

* <뉴욕 채권> 국채가격, 전일 FOMC에서 연방준비제도의 비둘기 성향이 확인된 영향으로 상승
  - 국채가격은 전일 BOJ의 양적완화 지속과 FOMC에서 연준의 느린 금리 인상 기조 확인, 시카고 전미 활동지수 등 지표 악화 영향으로 상승 출발
  - 오후 들어 국채가는 고점 매도새로 상승폭을 줄이며 마감

[미국]
2y 0.77% (-0.4bp)
10y 1.62% (-3.3bp)
30y 2.34% (-3.9bp)

[기타 10Y물]
영국 0.70% (-9.9bp)
독일 -0.10% (-9.8bp)
프랑스 0.20% (-10.0bp)
이탈리아 1.20% (-9.2bp)
스페인 0.91% (-8.1bp)
그리스 8.26% (-8.1bp)

2.글로벌 증시

* <뉴욕 마감> 美 금리동결에 상승세 지속... 나스닥 '사상 최고'

* 뉴욕증시,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글로벌 증시 랠리와 고용 지표 호조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

* 美 실업보험청구자수, 지난 7월 이후 최저수준 기록...고용호조 지속
  - 전주 대비 8000명 감소한 25만 2000명 (예상:26만명)

* 그 외 美 경제 지표 부진
  -8월 시카고연은 전미활동지수 0.24-> -0.55 (예상:0.13)... 지난 8월 미국의 경제 성장은 다소 부

진한 것으로 나타남
-8월 기존주택판매 5.38M-> 5.33M (예상:5.45M)...예상과 달리 0.9% 감소
재고 물량 부족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한 때문이어서 부동산 경기 호조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

* <유럽 마감> 美 금리 동결에 일제히 1% 넘게 급등

* <상하이 마감> 美 금리 동결에 상승 마감
금리 인상시 중국 등 신흥시장에 투자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사라지면서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

* <도쿄 마감> 추분절로 금융시장 휴장

DOW30	18392.46	(+0.54%)
NASDAQ	5339.52	(+0.84%)
S&P500	2177.18	(+0.65%)
SHANGHAI	3042.31	(+0.54%)
FTSE100	6911.40	(+1.12%)
DAX30	10674.18	(+2.28%)
CAC40	4509.82	(+2.27%)

3.글로벌 환시

* 달러화, 미국 경제 상황이 Fed의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뒷받침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로 엔화를 빼고 주요 통화에 내림

유로/달러	1.1206	(+0.0020)
유로/엔	112.89	(+0.62)
달러/엔	100.74	(+0.44)
달러/위안	6.6513	(-0.0225)
파운드/달러	1.30736	(+0.00475)
NDF	1103.00 / 1104.00원...0.30원 하락	

4.글로벌 상품

* <국제 유가> 달러 약세 & 美 재고 감소 영향으로 급등
  -EIA 지난주 美 원유재고 620만배럴 감소...마켓, 340배럴 증가 예상

* <국제 금값> 연준 금리 동결과 이에 따른 달러화 약세 등으로 상승

WTI	46.32	(+2.16%)
COMEX금	1344.70	(+1.00%)

5. 전일 국내 지표

코스피	2049.70	(+0.67%)
코스닥	685.24	(+1.03%)
원/달러	1103.30	(-16.80)
KTB	110.82	(+0.13)
LKTB	132.15	(+0.83)

6. 전일 국내 주요 금리

* 국고채 금리, 美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하며 일제히 하락
- 큰 폭의 강세로 출발. 10년 국채선물은 장 초반부터 반빅 이상 상승. 미국이 9월 깜짝 인상을 단행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왔던 기관 투자자들이 반발성 매수에 나서며 강세 확대. 장중 최저 금리 수준에서 일제히 마무리

1y	1.317%	(-1.6bp)
3y	1.296%	(-3.1bp)
5y	1.326%	(-6.0bp)
10y	1.519%	(-7.3bp)
20y	1.540%	(-7.3bp)
30y	1.550%	(-8.0bp)
CD	1.340%	(0.0bp)

7. 본드 스왑 스프레드

1y -4.80bp (+0.40bp)
2y -6.75bp (+0.05bp)
3y -4.85bp (-0.15bp)
5y -5.35bp (+1.25bp)
10y -17.40bp (+0.80bp)

8. IRS/CRS 동향

* IRS 금리 하락. 채권시장이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강세 되돌림. 채권금리 영향으로 장기물 금리가 큰 폭으로 빠져 커브 플래트닝
* CRS 금리 역시 1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하락. 장기쪽에서 오퍼리쉬한 분위기로 커브가 눌렸고, 2년과 5년쪽 구간이 주로 거래된 듯함

*IRS 금리

1Y 1.2750% (-1.50bp)
2Y 1.2525% (-2.75bp)
3Y 1.2475% (-3.25bp)
5Y 1.2725% (-4.75bp)
7Y 1.2900% (-5.50bp)
10Y 1.3450% (-6.50bp)

1*2Y -2.25 (-1.25bp)
2*3Y -0.50 (-0.50bp)
2*5Y 2.00 (-2.00bp)
3*5Y 2.50 (-1.50bp)
5*7Y 1.75 (-0.75bp)
5*10Y 7.25 (-1.75bp)

*CRS 금리

1Y 1.2050% (+1.50bp)
2Y 1.0600% (-1.50bp)
3Y 1.0400% (-1.00bp)
5Y 0.9800% (-2.00bp)
7Y 0.9350% (-3.00bp)

10Y 0.9200% (-4.00bp)

9. 주요뉴스

[해외]

* 日 긴급 금융당국 회의 열어 BOJ 추가완화책에 대한 반응 논의
- '외환시장의 과도한 투기적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아... 투기적 움직임이 지속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'

* 호주중앙은행 총재 '추가 금리인하 가능...경제 지표 고려해 금리 인하 여부 결정할 것'
- '올해 실시한 두 번의 금리 인하가 호주달러 약세, 원자재 가격 등을 지원하고 있다' 며 낙관적 평가

* BOE 통화정책 위원 '영국에 추가 부양책 필요치 않다'
- '브렉시트가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... 브렉시트 충격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다 '

* 인도네시아, 기준금리 석달만에 25bp 인하... 연 5.00%

* 中 정부, 뉴욕에 위안화 청산은행 설립을 계기로 위안화의 교역 결제 규모를 늘리고 국제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밝혀

[국내]

* 임종룡 금융위원장 "가계부채, 가파른 증가세가 문제"

* 대한항공 코코본드 추진...부채비율 낮추기 안간힘

* 산은, 한진해운에 500억원 지원...크레디트라인 설정

* 최상목 기재 차관 "美 금리 불확실성 해소...변동성 주시"

금일 예정 지표

미국-9월 제조업 PMI (예상:51.9, 이전:52.0)
독일-9월 제조업 PMI (예상:53.1, 이전:53.6)
-9월 서비스 PMI (예상:52.1, 이전:51.7)
유로존-9월 제조업 PMI (예상:51.5, 이전:51.7)
-9월 서비스 PMI (예상:52.8, 이전:52.8)